



마음을 드높이

김소영

■ 학습목표

- 예수님의 성심을 공경하는 것과 우리의 양심을 지키는 것을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다.
-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주님께 필요한 은총을 청할 수 있다.
- 양심을 저버린 사람들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계획한다.

■ 준비물

- 성경, 가톨릭 기도서, 필기도구, 채색 도구, 편지 봉투, 작은 투약병(약국에서 판매), 가위, 색종이, 명함 크기로 자른 두꺼운 종이, 하트 모양으로 자른 색지

■ 교리 시간

- 50분



시작 기도

마음을 드높이(청소년 성가 263번)

도입

여러분, 미사의 한 순서인 성찬의 전례 때 바치는 ‘감사송’을 함께해 볼까요?

- +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 ◎ 또한 사제와 함께.
 - + 마음을 드높이.
 - ◎ 주님께 올립니다.
 - +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 ◎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 (교사와 학생이 주고받거나, 학생들을 반으로 나누어 해 보아도 좋습니다.)

‘감사송’에 나오는 ‘마음을 주님께 드높이 올리겠다.’라는 구절은 무슨 뜻일까요?
(잠시 학생들의 대답을 듣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구절에는 우리 마음을 저 높이 하늘 나라에 계신 하느님을 향하게 하고, 좀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하느님이 아닌, 영똥한 곳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을 지켜보시는 하느님의 마음은 무척 아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하느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 언젠가는 다시 하느님께로 자신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테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들 마음 안에는 누구나 하느님께서 심어 놓으신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낮은 자로 인간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 성심’은 이처럼 강생의 신비, 십자가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 등을 통해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보답하는 것은 항상 우리 마음을 하느님께 드높이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닮기 위해 노력한다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하느님 가까이에 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성심 성월인 6월을 보내며,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자신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을 되살려 하느님

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봅시다. 지금부터 함께해 볼 두 가지 작업이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줄 것입니다.

작업1

지금 나의 마음은?

선생님들께 ⇨ 다양한 색깔의 색종이에 다음의 천사 이름을 적은 뒤, 바닥이나 책상 등 교리실 곳곳에 흩어 놓습니다.

감사천사/겸손천사/경외천사/끈기천사/기도천사/냉철천사/느림천사/다정천사/따뜻함천사/명랑천사/모험천사/부지런천사/사교천사/사랑천사/성취천사/슬픔천사/열정천사/용기천사/용서천사/위로천사/이해천사/조화천사/절약천사/진실천사/자비천사/자유천사/치유천사/현명천사/화해천사/확신천사/믿음천사/희망천사/희생천사

- ① 교리실 곳곳에 있는 다양한 천사들을 살펴봅니다.
- ② 다음의 질문에 해당하는 천사의 이름을 찾아 그 앞에 서 봅시다.
“만약 천사가 여러분이 주님께 마음을 드높이는 것을 도와준다면, 어떤 천사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자신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한 천사를 선택해 보십시오.”
- ③ 자신이 선택한 천사와 현재 자신의 마음에 대해 친구들과 나눔을 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많이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현재 내 마음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합니까?
-왜 그 천사의 도움이 필요한지 이유를 말해 봅시다.

선생님들께 ⇨ 만약 학생 인원이 많아 나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그룹을 나누어 나눔을 할 수 있게 지도해 주십시오.

- ④ 명함 크기로 자른 두꺼운 종이를 한 장씩 나누어 갖고, 앞면에 자신이 선택한 천사의 이름을 예쁘게 적습니다.
- ⑤ 명함의 뒷면에는 그 천사가 우리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충고나 격려의 말을 상상해 적어 ‘천사 명함’을 완성합니다.



하느님께서 손수 빚어 주신 우리의 마음은 모두 다 귀중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귀중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난폭함, 분노, 불안, 의심, 욕심, 게으름, 냉정 등 하느님께서 원치 않으실 것들로 채워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로 채워진 우리의 마음은 갈 곳을 잃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떠돌아다니게 되고, 결국 마음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면, 마음을 다시 하느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 예수 성심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예수 성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업2

말씀 처방하기

① 다음은 하느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예입니다. 이 중에서 기도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골라 보십시오.(만약, 마땅한 예가 없다면,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좋습니다.)

-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득만 꾀하는 정직하지 못한 정치인
-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리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사람
- 근무 중에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직원들을 모른 채하고 진실을 숨기기에만 급급한 기업인
-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사람
-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을 해치는 사람
- 사람을 물건처럼 다루며, 돈벌이에 이용하는 사람
- 나쁜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
- 다른 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 비윤리적인 태도에 대해 비판 의식조차 갖지 않는 사람
- 용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
- 용서하지 못하고 편을 나누며 다른 이를 미워하는 사람
- 생명을 쉽게 포기해 버리는 사람

- ② ①에서 선택한 사람 유형의 구체적인 사례를 떠올려 보십시오.
- ③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하느님께로 향할 수 있게 도와줄 성경 말씀을 처방해 보십시오.

아래에 제시된 성경의 장을 직접 읽고, 그 안에서 알맞은 구절을 찾아보세요.

- 마태오복음 : 5장, 6장, 9장, 11장-13장, 15장, 17장, 18장, 22장, 26장
- 마르코복음 : 1장-3장, 6장-9장, 11장, 14장, 16장
- 루카복음 : 6장-10장, 12장, 15장, 16장, 21장, 24장
- 요한복음 : 5장, 11장, 12장, 14장, 16장

- ④ 찾은 성경 구절을 하트 모양으로 자른 색지 위에 적습니다.
- ⑤ 투약병에 성수를 담아 하나씩 나누어 갖습니다.
- ⑥ 편지 봉투에 성경 말씀을 적은 색지, 성수통과 앞의 작업에서 만든 천사 명함을 넣습니다.
- ⑦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전해줄 수는 없으므로, 각자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대신 기도해 주기로 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 가져간 성수를 째어 성호를 긋고 시작합니다.

선생님들께 이 작업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양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훈계하는 것이 아님을 학생들에게 주지시켜 주십시오.

위에 제시된 성경의 장을 찾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시간 단축을 위해 게임처럼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없이 여긴 부분을 찾아보세요.” 라던가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에 이것을 간직하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설탕, 2번 빵, 3번 물, 4번 소금”(정답 : 4번 소금, 마르 9, 50 참조)이라는 식의 질문을 던지면,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성경 구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찾으며, 그 안에 담긴 예수님 마음을 느껴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굶주린 백성이나 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처럼 힘없고 약한 이들을 가엾게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그들에게 다가가시어 따뜻한 도움의 손길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단호하게 그것이 잘못된 일임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닮아야 할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직접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는 모습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항상 성경을 비롯한 교회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지키며 생활하고, 죄를 짓고 하느님과 멀어져 가는 사람들을 위해 자주 기도해야겠습니다.



교회의 가르침

인간은 양심의 깊은 곳에서 법을 발견한다. 이 법은 인간이 자신에게 부여한 법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이 거기에 복종하여야 할 법이다. 그 소리는 언제나 선을 사랑하고 실행하며 악을 회피하도록 부른다. 필요한 곳에서는 마음의 귀에 대고, 이것을 하여라, 저것을 삼가라 하고 타이른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새겨 주신 법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 법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이며 이 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사목헌장 16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식량 부족으로 극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모든 사람들에게서 특히 부자들에게서 이러한 책임 의식을 일깨워야 할 필요가 있다.”(교황 요한 23세 사회회칙 「어머니요 스승」 158항)

하느님께서 인간의 내밀한 마음 안에 질서를 새겨 주셨는데, 이것이 양심을 일깨우며, 인간은 단순하게 이 양심을 따라야 한다. “인간은 그들 마음속에서 하나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안다. 양심이 바로 그 근거가 된다.”(교황 요한 23세 사회회칙 「지상의 평화」 5항)

강자란 흔히 가장 무자비하게 싸우는 자, 양심의 명령을 가차 없이 무시하는 자를 의미한다.(교황 비오 11세의 사회회칙 「사십주년」 41항)

각자의 양심에 귀를 기울여 보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계획된 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용의가 있는가? 국가가 더욱 광범위한 발전을 추진하도록 더 많은 세금을 바칠 용의는 있는가? 생산자가 더욱 공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수입품의 가격을 좀 더 높여 줄 용의는 갖추어졌는가? 후진국을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청춘 시절에 고국을 떠날 각오는 서 있는가? 깊이 반성하자!(교황 바오로 6세 사회회칙 「민족들의 발전」 47항)

느낌 나눔과 생활 적용

오늘 교리 시간을 통해 느낀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생활에서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지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예시) -성시간과 성체강복에 참여하기

- 하느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정치인, 교육자, 기업인, 공무원 등이 다시금 양심을 회복할 수 있게 6월 한 달 동안 예수 성심 성월 기도(가톨릭 기도서의 '예수 성심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 드리기

- 마음에 상처를 입고 힘들어 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 마음을 깨끗이 정화할 수 있게 돕는 음악, 미술 감상 시간 마련하기
-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고 있는 TV 프로그램, 만화, 게임 등을 멀리하기
- 예수님을 상징하는 초를 정하여 켜 놓고, 하루 5분 이상 예수님과 대화하기
- 나의 말과 행동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의와 복음의 정신대로 살다가 오히려 핍박 받고 있는 양심수들을 기억하기

생명의 말씀

- 바른 양심을 가지고 온유하고 공손하게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선한 처신을 비방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중상하는 바로 그 일로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입니다(베드 3, 16).
-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마음을 담아 버리면, 하느님 사랑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요한 3, 17)
-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 영적인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갈라 6, 1).
-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마르 12, 33).

정리

우리는 작은 유혹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오직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것에만 사로잡혀 참된 것들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또한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고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태도를 버리고 하느님께로 마음을 드높여야 합니다. 물론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또 내 마음속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행동했는데도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직하게 양심을 지키며 사는 사람을 세상 사는 요령도 잘 모르는 바보처럼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언제나 양심을 지키는 이들의 편이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사랑 가득한 당신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품어 안으시어 거친 세상 풍파에서 안전하게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할 높은 그 자리를 늘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감사송' 을 다 함께 바친다.)

- +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 ◎ 또한 사제와 함께.
- + 마음을 드높이.
- ◎ 주님께 올립니다.
- +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 ◎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마침 기도

예수 성심 성월 기도(예수 성심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

<참고 자료>

- 간추린 사회교리 e-book(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문헌마당 www.cbck.or.kr)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사목헌장'
- 교황 요한 23세 사회회칙 「어머니요 스승」
- 교황 요한 23세 사회회칙 「지상의 평화」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사회회칙 「인간의 구원자」, 「자비로우신 하느님」
- 교황 비오 12세 사회회칙 「물을 길으리라」
- 『올해 만날 50천사(안셀름 그린 저, 서명옥 역, 분도출판사, 2000년)』

※참고 자료로 제시한 교황 문헌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등은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홈페이지 www.cbck.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김소영 세실리아
1993년부터 1998년까지 개포동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대학교 중고등부 사목부의 교육부 교사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프로듀서와 매체 교육 강사로 일하고 있다.